

빅 데이터 가치론과 공통부 배당론

금민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2019.11.22

목차

빅 데이터 가치론과 공통부 배당론



I

빅 데이터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 알고리즘과 빅 데이터, 플랫폼 자본의 가치생산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의 물질성 - 빅 데이터는 이차적 자연·인공적 공통부이다.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IV

데이터 가치론과 데이터 소유권

V

공통부 배당론과 기본소득

I. 빅 데이터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 데이터의 중심성과 데이터 기반 가치생산



- **이윤생산에서 데이터의 중심성:** 미국 3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기반 의사 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채택한 기업의 실적과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5~6% 높다(Brynjolfsson et al., 2011). 영국 500개 기업 조사,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8~13% 더 생산적(Bakhshi et al., 2014).
- 데이터의 중요성은 ICT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금융, 농업, 공공 분야 등 **산업과 사회 전체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OECD, 2014).

I. 빅 데이터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 데이터의 중심성과 데이터 기반 가치생산



-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 규모의 경제:
이용자 증가 → 데이터 증가 → 이윤증대 (수확체증의 법칙)
- 이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존. 핵심적 요소는 데이터. 이 점에서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과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은 플랫폼 소유권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실질적 지배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 데이터의 활용은 자본의 생산주기, 유통주기, 재투자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이윤생산에 기여(Daum, 2017; 226-227).
-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비중 증대: 애플, 구글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2017년 기업가치 기준으로 세계 5대기업 (2016년 기업수익 기준으로 구글 27위, 페이스북 188위).

I. 빅 데이터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 데이터 기반 가치생산



- **노동소득분배율**: 미국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은 53.1%, 페이스북의 총수입에 대한 임금비중은 11.0% (Fuchs, 2019) 일반적으로, 지식자 산생산의 증대는 노동소득의 GDP 비중을 하락시킴. 성장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비중의 하락이 절대적 크기 축소로 이어지지 않음. 현 상태의 특징은 저성장과 파괴적 기술혁신의 동반. 플랫폼 자본주의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대한 탈동조(McAfee and Brynjolfsson, 2016),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감시자본주의, 사회인프라 전반에 대한 자본지배.
- **일반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지식은 고정자본, 곧 기계에 흡수된다** (맑스, Maschinenfragment: MEW 42, 590~609). **현존하는 최고의 ‘기계’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인공지능, 곧 플랫폼 알고리즘.**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21세기 자본주의 이해의 핵심.**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의존형 알고리즘



- 콘텐츠 알고리즘과 플랫폼 알고리즘의 구별: 클라우드 컴퓨팅과 기계학습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등장시킴.
- 지식 인클로저 방식의 변화: 지적재산권에 입각한 유타리치기에서 오픈 소스를 플랫폼에 의해 포획하는 유타리치기로 발전.
- 플랫폼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관계: 칸트를 빌리자면, “알고리즘 없는 빅데이터는 공허하며(Leer), 빅데이터 없는 알고리즘은 맹목적이다(blind)”. 사태는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둘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며 상호 구성적.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가치생산에서 플랫폼, 빅 데이터, 알고리즘의 역할과 기능



- 플랫폼은 데이터 추출 장치로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며 빅데이터 기반 가치생산의 사회적 형태규정성.
- 데이터는 가치원천. ‘가치 증식하는 정보’의 물질적 형태. 빅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는 가치원천을,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는 형태규정성을 강조함.
- 플랫폼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산업기계와 같은 물리적 고정자본, 나아가 노동규율체제, 더 나아가 화폐처럼 가치평가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
- 플랫폼 알고리즘은 개별적 생산기계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으로서 사회적 지능의 맹아형태. (투하노동시간) 척도의 소멸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디지털) 척도의 등장.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원료로서의 데이터? 혹은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 데이터는 원유라는 비유 (Srniczek, 2017; Haskel and Westlake, 2017).
- 데이터를 천연자원에 비유하는 것은 비임금노동(unwaged labor)을 전유하는 자본의 작동을 은폐한다는 비판(이항우, 2014; 신은화, 2018). 천연자원의 비유는 데이터를 자유재로 바라보게 만든다.
- 플랫폼 알고리즘 및 빅 데이터는 맑스가 ‘기계에 관한 단상’에서 말한 바 ‘고정 자본으로서의 일반 지성’이 아니며, 오히려 ‘살아 있는 노동으로서 대중 지성(분산 지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Virno, 2007; Vercellone, 2007; Hardt and negri, 2004)
- 그렇다면 데이터는 살아있는 노동인가?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의 물질성: 디지털 기록물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에서 알고리즘과 빅 데이터, 비인간주체와 인간주체,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근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Lazzarato, 2014: 43).
- 그럼에도 데이터의 물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데이터는 기록물이라는 점.
- 데이터는 디지털 활동 그 자체가 아니고 디지털 활동의 기록물, 대부분의 생활 활동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인간 활동의 기록물, 나아가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경제와 사회의 물적 교류의 기록물.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특정한 서버에 보관되며, 이를 통해 플랫폼 자본에 의해 유타리쳐지고 배타적으로 활용되는 기록물이다.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의 물질성: 형태분석의 우위



- 데이터를 살아 있는 노동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능동적 형성적 작용인 활동·노동과 이러한 작용의 기록물이라는 엄연한 존재론적 간극을 무시한다.
- 데이터를 자본에게 부여된 자유재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생성한 살아 있는 활동과 데이터를 동일시하는 것도 기록물로서 데이터의 물질성이라는 사회적 존재형태를 놓친다.
- 정동, 살아 있는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라는 비유는 플랫폼 알고리즘 시대의 비물질 주체인 데이터의 존재형태를 살아 있는 인간들로 되돌리는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 중요한 것, 분석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원천/기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유효한 운동형태, 교류형태, 사회적 형태이다 (형태분석의 우위).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 활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 물질노동 또는 비물질노동으로 유형화할 수 없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활동을 비물질노동으로 환원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물질노동도 데이터를 생산한다.
- 임금노동 또는 비임금노동으로 유형화할 수 없다. 데이터로 기록되는 활동은 사회재생산 활동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부불노동/그림자노동만이 아니다. 임금노동/지불노동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이 데이터를 생성하며 데이터로서 기록된다.
- 정동 또는 살아 있는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라는 비유는 데이터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동적 강조점은 기록물로서의 데이터라는 사회적 존재형태를 은폐한다.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는 기록물? 그렇지만 빅 데이터 경제는 부단한 혁신경제? 둘은 모순적이지 않다.



- 데이터는 디지털 기록물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데이터의 사회적 존재형식이다.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와 지식은 개념적으로 구별 가능하다.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형태와 상관 없는 개념.
- 기록물이라는 측면은 언제나 고정자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지 상태로 고정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산업기계가 과거의 사회적 지식을 체화하지만 부단한 혁신을 통해 교체되듯이 데이터도 매 순간 집적되고 업그레이드된다. 기록물은 매 순간 부단하게 기록된다.
- 빅 데이터 자본주의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도 일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단한 혁신경제이다.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투하노동시간가치론의 종말? 자동화된 자본주의의 미래?



- 투하노동시간이 교환에 의해 선형적으로 화폐로 표현된다는 가정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의 산업자본주의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속류 맑시즘의 오해에 불과. 맑스 역시 가치형태론에서 화폐론적 전회 또는 효력론적 전회를 수행했음. 즉 화폐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 가치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
- 자동화로 인한 투하노동의 축소에서 탈자본주의 가능성을 찾는 일(Mason, 2015)는 비논리적. 가치화는 화폐화이며 본질적으로 투하노동량과 상관 없음.
- 마찬가지로 정보재의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에서 탈자본주의 가능성을 찾는 시도(Rifkin, 2014; Mason, 2015; Bastani, 2019)도 화폐화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 비배제적 비경합적 오픈 소스에 의존하는 플랫폼 자본주의는 정반대로 사회적 삶 전체의 전면적 화폐화 가능성을 실증하고 있음.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데이터에 의존하는 가치생산의 화폐화



- 데이터 의존형 가치생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즉 지대(또는 차액 지대)인가 잉여가치 생산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경제적 운동 형태와 화폐화 형태에 대한 질문이다. 데이터에 의존하는 가치생산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과정인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폐화는 이 과정에서 수행된다.
-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이 과정은 화폐화 되지 않는 외부로 전제하며, 따라서 가격을 가지지 않는 자유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후생의 증대는 화폐로 표시되는 GDP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총요소생산성 역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의제적으로 화폐화된 ‘내재적 외부’를 확장한다. 플랫폼이 율타리치기 하는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내재적 외부이다.

II. 빅 데이터 가치론 – 입론을 위한 주춧돌

▶ 자동화 경제의 화폐화와 탈자본주의의 가능성



- 노동투하를 축소하는 자동화 경제는 화폐화 될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 그 자체가 화폐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 화폐화는 상품생산을 전제, 상품생산은 소유권 문제가 선결조건.
- 탈자본주의의 가능성은 비배제적 디지털 재화의 화폐화의 불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소유권 문제이다.
- 플랫폼 자본주의는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전 사회적 집중.
- 빅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 알고리즘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적 사회정치 문제.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첫 번째 유형



- 데이터는 개별적 노동이다: 이 입장의 문제점은 1) 개인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구별을 무시하고 빅 데이터를 개인데이터로 환원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점, 2) 개별적 노동으로 보면 데이터는 개별적 소유권의 대상인데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의 난점, 3)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개별적 보상체계의 도입으로 이어짐 (마이크로페이먼트)
- Carrascal 외(2013)는 개인식별가능정보(PII)의 가치를 제2가격 역경매(reverse second price auction) 방식으로 측정했는데, 오프라인 정체성에 관한 PII(연령, 성별, 주소, 경제 상태)의 가치는 €25, 단순 검색 정보는 €2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개인데이터 가치는 헐값으로 측정됨.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첫 번째 유형



- ‘(개별적) 노동으로서 데이터’(data as labor) 개념의 등장은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소유권 확립에 대한 필요와 직결. 데이터 소유권 논의는 빅 데이터 자본의 데이터 지배권을 잘 정의된 사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시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의 주창자들은 인공지능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의 감소 위험, 불평등의 증가 등을 강조하면서 원천 데이터의 보유자들인 개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강조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글렌 웨일(Glen Weyl)과 동료들은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의 고정자본으로 소유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데이터를 노동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별 노동에 보상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Ibarra et al., 2018). 이들의 대안은 급진적 데이터 자유시장과 데이터 노동조합.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두 번째 유형

● 두 번째 입장은 데이터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관점

- 1) 이 입장의 문제점은 기록물로서의 데이터와 이를 생성하는 활동의 개념적 혼동. 이러한 혼동은 왜 지금처럼 데이터가 자유재처럼 취급되며 플랫폼에 가두리쳐질 때는 고정자본처럼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데이터의 사회적 존재형태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 2) 이 입장은 비임금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조건적,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이어짐. 이로부터 곧바로 탈자본주의 전망은 나오지 않음. 고임금 자본주의도 가능했듯이 기본소득 자본주의도 가능하다.
- 3) 따라서 포스트 오페라이스모(post operaismo)의 대표자들은 탈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비임금노동에 대한 보상론이 아니라 디지털 노동의 자율성, 디지털 고정자본의 정동적 성격, 공통체의 등장에서 찾음. 노동에 대한 정치적 독해의 연장선.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세 번째 유형

- 빅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며 누구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고 누구의 성과로도 확정할 수 없는 공통부로서 인간 활동에 의해 생산하고 부단히 갱신되어 가는 2차적 자연이다.



- 1) 천연자원의 비유는 틀린 것이 아님. 데이터는 인공적 공통부. 천연자원의 비유가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전유를 은폐한다는 관점은 자연적 공통부를 자유재로 전유하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혼동일 수 있음.
- 2) 천연자원이 채취자의 사적 소유물 또는 국가의 공공소유(public ownership)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인 경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 알래스카 영구기금.
- 3) 페인은 토지공통부를 공동소유로 인식, 하지만 과학기술 역시 인공적 공통부. 빅 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공적 공통부의 최신 형태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세 번째 유형

- 인공적 공통부 개념은 가치의 경제학을 넘어 부의 경제학의 귀환을 함축한다.



- 1) 노동가치론은 가치의 원천이 인간노동이라는 입장. 아담 스미스에게 이러한 전환은 누구나 노동을 투하하여 사유재산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연을 자유재로 보았기 때문이며, 교환비율은 자유재의 양이 아니라 인간노동 투하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함축.
- 2) 반면에 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가치의 원천은 인간노동이지만 부의 원천은 자연과 노동 둘 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 3) 페인은 토지공통부를 공동소유로 인식, 하지만 과학기술 역시 인공적 공통부. 빅 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공적 공통부의 최신 형태.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세 번째 유형



- 인공적 공통부의 화폐화는 가치 경제의 외부를 내부화 하는 것. 플랫폼 자본은 경쟁 메커니즘의 강제 속에서 이러한 내부화를 수행함. 네트워크 외부성은 플랫폼 자본의 이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가치 경제의 내부로 들어옴.
- 인공적 공통부를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하는 제도가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의하여 인공적 공통부의 화폐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 하지만 화폐화는 동시에 분배와 할당이기도 함. 기본소득은 화폐화를 폐지하지 않지만 분배와 할당을 변화시킴. 이 점에서 ‘완전 자동화된 럭셔리 공산주의(Bastani, 2019)와는 다른 방향의 사회변화를 함축함.

III. 빅 데이터 가치론 - 유형화

▶ 데이터 가치론의 세 번째 유형



- 빅 데이터를 인공적 공통부로 간주하게 되면 그러한 공통부의 분배방식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일 수밖에 없음. 모두의 몫을 특정 집단에 선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자본이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못한 분배.
-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인공적 공통부 개념의 도입은 <부의 내부화로서의 데이터 가치론>을 함축함. 데이터는 천연자원처럼 공통부로서 가치 경제의 외부이지만, 수집 집적되고 활용될 때 가치로서 내부화 됨.

IV. 데이터 가치론과 데이터 소유권

▶ 노동으로서의 데이터와 데이터 재산권 논의



-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 논의는 데이터 자유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 최근,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한계와 비효율성이 논의됨. 하지만 데이터 재산권 논의에 대한 플랫폼 자본의 입장은 복합적, 이중적. 데이터가 자유재처럼 취급되는 현재 상태보다 데이터가 개별적 재산권의 대상이 된 상태가 자본축적에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출하지 못함.
- 지적 재산권과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재산권을 설정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와 데이터 소유권을 물권과 유사하게 입법하려는 독일 교통부의 전략 문서(2017)는 데이터 재산권 논의의 두 방향.
- 이러한 현황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유럽 GDPR), 빅 데이터에 대한 공동소유권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움(예외적으로 Bria, 2018).

IV. 데이터 가치론과 데이터 소유권

▶ 노동으로서의 데이터와 데이터 재산권 논의



- 개별적 재산권으로 데이터 재산권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데이터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적 처지에 처한 사람들과 타인의 데이터 재산권을 구매하여 무제한적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본으로 사회를 둘로 분할할 것임. 마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법률적 확립(2차 인클로저)가 토지 없는 무산계급을 산출했듯이. 데이터 재산권 논의는 디지털 경제의 권력논의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획득할 것인가의 문제.
- 빅 데이터에 대한 만인의 공동소유권(common ownership) 개념은 디지털 경제의 권력논의에 개입하는 유일한 방식.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함. 빅 데이터에 대한 공유자민주주의 vs 플랫폼 자본의 데이터 소유를 통한 감시체제(분산화된 집중)

IV. 데이터 가치론과 데이터 소유권

▶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과 소유권 논의



- 빅 데이터를 사회적 노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소유권 논의에 친화적일 수 없음. 인간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님. 노동력을 소유하고 상품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노동을 소유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그것은 노예상태).
- 하지만 데이터는 노동과는 분리된 물적 형태를 취함. 소유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야말로 데이터 경제의 권력문제.
- 빅 데이터를 2차적 자연, 인공적 공통부로 간주할 때 데이터 소유권 논의에 개입할 수 있음. 인공적 공통부 개념에 입각할 때 빅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질문하며 소유권 논의에 개입할 수 있음(현재 상태에서 데이터는 자본의 실효지배 상태, 데이터 재산권의 법률화는 일종의 의회 인클로저).

IV. 데이터 가치론과 데이터 소유권

▶ 인공적 공통부인 빅 데이터에 대한 공동소유의 실현형태



- 조세형 빅 데이터 기금: 데이터에 의존하는 가치창출에 대하여 일종 부분을 과세하여 빅 데이터 기금을 조성하고 이로부터 모두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배당하는 방식
- 공유지분권에 근거한 배당: 빅 데이터 공동소유권은 미드(Mead, 1989)의 사회배당 모델에 좀 더 강화된 근거를 제공함. 기업수익은 상당 부분은 데이터 의존 가치창출,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는 기업주식의 일정 부분에 대해 공유지분을 가지며 배당 받을 수 있다.
- 공동소유형 플랫폼으로부터의 배당: 빅 데이터만이 아니라 추출기구인 플랫폼, 결과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까지 전면적으로 공동소유로 전환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V. 공통부 배당론과 기본소득

▶ 빅 데이터 공통부 개념은 공통부 배당론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은 공통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 기본소득론의 발흥은 토지공통부 개념과 함께(Paine, 1969[1796]; Spence, 1982[1797]). 기본소득론의 현대적 전개는 지식과 빅 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통부 개념과 함께(Cole, 1935; Simon, 2000).
- 공통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파악하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기본소득 고유의 핵심 지표는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세 지표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라는 동일한 분배원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상호 분리되지 않는다.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평등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유한 분배방식은 그 원천이 공통부라는 점의 논리적 귀결이다.

V. 공통부 배당론과 기본소득

▶ 플랫폼 과세의 기술적 정치적 난점. 빅 데이터 공동소유권에 입각한 글로벌 차원의 공유지분권 모델은 해법일 수 있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딜레마를 우회할 과세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WTO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제가 가능했듯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유지분권 합의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공유지분권은 인류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되며 개발원조를 대체.
- 전 인류의 빅 데이터 공동소유권에 입각한 플랫폼 기업 공유지분권은 글로벌, 국민국가, 로컬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설계된 중층적 기본소득 모델의 일부

References

- Bria, Francesca (2018). "A New Deal for Data", In McDonell, John (ed.), *Economy for the Many*, London; Verso.
- Bakhshi, H., Bravo-Biosca, A. and Mateos-Garcia, J. (2014), "Inside the Datavores: Estimating the Effect of Data and Online Analytics on Firm Performance", Nesta, March
Bakhshi, H., Bravo-Biosca, A. and Mateos-Garcia, J. (2014), "Inside the Datavores: Estimating the Effect of Data and Online Analytics on Firm Performance", Nesta, March, available at:
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inside_the_datavores_technical_report.pdf.
- Bastani, Aaron (2019). *Fully Automated Luxury*, London: Verso.
- Brynjolfsson, E., L.M. Hitt and H.H. Kim (2011), "Strength in Numbers: How Does Data-Driven Decisionmaking Affect Firm Performance?",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819486.
- Brynjolfsson, E. and A. McAfee (2016).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Paperback,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14).
- Carrascal, Juan Pablo and Christopher Riederer, Vijay Erramilli, Mauro Cherubini, Rodrigo de Oliveira (2015). "Your browsing behavior for a Big Mac: Economics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jpcarrascal.com/docs/publications/WWW2013-Browsing_behavior_big_mac.pdf
- Daum, Timo (2017). *Das Kapital sind wir: zur Kritik der digitalen Ökonomie*, Hamburg: Nautilus.
- Fuchs, Christian (2019). „Karl Marx in the Age of Big Data Capitalism", In Chandler, David and Christian Fuchs (2019). *Digital Objects, Digital Subject.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apitalism, Labour and Politics in the Age of Big Data*, 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pp. 53-71.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Multitude*, London: Penguin

References

- Cole, George Douglas Howard (1935). *Principles of Economic Planning*. London: Macmillan. available at: <https://archive.org/details/in.ernet.dli.2015.50252>
- Ibarra, Immonol Arrieta et. al (2018). "Should We Treat Data as Labor? Moving Beyond 'Free'", available at: [file:///D:/%EB%8B%A4%EC%9A%B4%EB%A1%9C%EB%93%9C/ShouldWeTreatDataAsLabor_MovingBe_previe w%20\(1\).pdf](file:///D:/%EB%8B%A4%EC%9A%B4%EB%A1%9C%EB%93%9C/ShouldWeTreatDataAsLabor_MovingBe_previe w%20(1).pdf)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2017). *Eigentumsordnung' für Mobilitätsdaten*, available at: https://www.bmvi.de/SharedDocs/DE/Publikationen/DG/eigentumsordnung-mobilitaetsdaten.pdf?__blob=publicationFile
- Haskel, Jonathan and Stian Westlake (2017). *Capitalism without Capital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zzarato, Maurizio (2014). *Signs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CA: Semiotext(e)
- Marx, Karl (1857).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EW 42.
- Mason, Paul (2015). *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London: Penguin Books.
- Meade, James E. (1989). *Agathot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 Abreden University Press.
- OECD (2014), *Data-driven Innovation for Growth and Well-being*, <https://www.oecd.org/sti/inno/data-driven-innovation-interim-synthesis.pdf>

References

- Paine, Thomas (1969[1796]). "Agrarian Justice", *The Complete Writings of Thomas Paine*, New York: Citadel Press, Vol. 1, pp. 605~624.
- Rifkin, Jeremy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 Srnicek, Nick (2017). *Platform Capitalism*, Cambridge: Polity Books.
- Simon, Herbert Alexander (2000). "UBI and the Flat Tax", *Boston Review*. Oct. 1. In Phillippe van Parijs, Joshua Cohen, and Joel Rogers (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oston: Beacon Press.
- Spence, Thomas (1982[1797]). "The Rights of Infants". In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 Vercellone, Carlo (2007).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Elements for Marxist Reading of Thesis of Cognitive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15, pp. 13-36.
- Virno, Paolo (2007), "General Intellect", *Historical Materialism* 15, pp. 3-8.



감사합니다

금민
(geummin2013@gmail.com)

정치경제연구소
대안